

## 21세기를 향한

## 대한전기협회의 미래상 下

변 중 달

한국전력기술(주) 위촉기술역

## 5. 정보센터 기능

## 가. 국내의 정보 수집

국제화시대가 개막되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는 더욱 그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규모가 큰 조직체는 자체적인 정보수집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체해결을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체는 자체적인 정보 수집능력 은 물론 정보의 분석과 활용할 수 있는 2차 정보로의 전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체계화되지 않고 단편적이어서 그대로는 활용할 수 없는 몇가지 안되는 1차 정보를 가지고는, 특히 국제화시대에는 조직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산업계의 한 조사에 의하면 기술정보 수집상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즉시 활용곤란이 38.7%, 수집자체가 곤란이 29.1%, 소재원 파악곤란이 16.1% 그리고 자료의 가치 및 최신성 파악 곤란이 16.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일본 기업체나 관공서를 찾아오는 한국인 방문객들이 먼저의 방문팀과 같은 기관에서 왔으면서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먼저

방문객이 얻어간 자료를 자신의 책상에만 넣어두지 말고 공유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반문인 것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인 방문객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는 이미 먼저 방문팀이 몇월 몇일 얻어갔다고 증거를 제시한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은 무엇인가 듣고 본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넘기는 경우가 결코 없으며, 어떤 정보라고 입수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수집된 정보를 집결시킴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다.

정보는 공유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계도 각 기업체의 기밀에 속하는 특별한 정보 이외는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축적과 비교분석으로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중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각종 국내외정보의 수집과 이를 가공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회원사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 신뢰성있는 국내외 정보를 회원사들이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계의 국제경쟁력은 월등히 향상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정보는 기술분야 뿐만이 아니라 각종 통계, 경영 기법, 판매전략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또한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수집에 임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대를 가지고 전기관련 정보를 전기협회에 총집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해외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살아있는 정보를 직접 수집토록 하며 이와 같은 생동감 넘치는 정보를 회원사들에게 제공하여 최신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회원사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통계의 종합·분석

통계란 어떤 집단에서 개개 요소의 분포를 조사하여 그 집단의 경향·성질 등을 수량적으로 통일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로서 얻은 수치를 말한다. 따라서 통계야말로 모든 정보의 핵심이다. 정확한 각종 통계와 통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은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전기협회가 전기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통계자료로서 제공해준다면 전기계의 명실상부한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 이외에도 발전을 영위하는 기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을 위시하여 지역난방과 소수력발전 등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도 단순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복잡하고 다원적인 분산형 발전설비와 열공급설비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등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기사업과 관련된 모든 통계의 공인된 통계작성자로서 대한전기협회가 지명을 받아 통계의 수집, 종합, 분석 등을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과 관련되는 특히 미국의 에디슨 전기협회(EEI) 발간의 소책자 등을 업선해서 번역 발간함으로써 세계적인 추세와 국제적인 동향 파악에 기여하게 되며, 전력계의 용어 통일과 그

개발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6. 국제 협력 사업

### 가. 국제협력의 창구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국내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발맞추어 우리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진출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그 진출의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 해외진출에는 사람의 진출과 함께 문화의 진출, 상품의 진출, 예술, 체육의 진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진출, 경영의 진출, 학술의 진출, 산업설비 유지관리의 진출 등 모든 분야의 진출이 각기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위선양과 다른 분야의 후속적인 진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상호 상승작용으로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내에 성공적인 급성장을 이룩하여 동남아를 비롯한 모든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그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의한 해외진출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험을 우방 후발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에 수반하여 후속적으로 설계, 기자재, 시공, 운전 등의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계속적인 후속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만성적인 자본도입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수원국의 입장에서 소규모나마 자본

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그 국제적인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1987년에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1991년에 발족하게 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여건 변동에 따른 우리나라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취해진 것이다. EDCF는 장기·저리의 차관금을 제공하고, KOICA는 주로 무상조건의 기술지원사업 즉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전력부문인 경우 이와 같은 기술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그때 그때 일정한 기준없이 적당히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 파견의 경우 대한전기협회가 전력부문의 종합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임을 받음으로써 알맞는 회사 또는 기관을 지명하든지 적격자를 직접 추천하여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사업이 보고서 제출로 일단 종료된 후에도 이 보고서와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보존하여 몇년후에라도 상황이 바뀌어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경우 보존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프로젝트는 타당성조사 후 보류되었다가 몇년후에 다시 소생하여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창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기술지원사업은 일단 보고서 제출로 일단락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해외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전력부문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 오는 훈련생을 그 목적에 가장 알맞는 회사 또는 기관에 배치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훈련효과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창구기능을 대한전기협회에서 수행토록 위임받는 경우 훈련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와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수후 귀국시에는 정기적으로 뉴스 레터를 보내는 등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하여 지한인사 내지 친한인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나라의 전력분야의 정보입수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생의 마중과 전송 그리고 숙소의 소개 또는 배치 더 나아가서는 민박의 알선도 가능하여 민간외교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회원사 특히 전력그룹 회원사에서 해외출장을 갈 때에는 의무적으로 전기협회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토록 하여 전기협회에서 정리보관함으로써 다음에 같은 곳으로 출장을 가는 다른 회원사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점점 완벽한 정보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해외의 자료수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급성장에 수반하는 경험도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단기간내에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전원 개발 계획, 비상전력대책, 수요개발, 수요관리, 손실감소 대책, 발전함운용, 1차 배전전압의 격상, 2차 배전전압의 격상, 인력개발, 회계제도, 도전방지 대책, 농어촌전화 사업, 전기요금 제도 등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후발개발도상국들에게는 소중한 이룰데 없는 자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여 국제어인 영어로 작성하여 후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방식 즉 우리 문화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정리와 요약도 전기협회에서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만 얻을 수 있다면 담당할 수 있는 과제이다.

#### 나. 해외전력조사단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회원사로 구성된 전력조사단으로

하여금 진출대상 또는 협력대상국들을 직접 순회 방문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비영리단체인 대한전기협회의 이름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으로서 통상산업부,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그룹의 주요회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상대국가의 전력사업 정책수립자로부터 격의없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력조사단이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대상국별로 정리하여 발간함으로써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회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본자료로서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간되는 해외시장정보와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또는 유엔 개발계획과 같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과 각종 보고서는 해외진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수집·분석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력부문 국제협력의 창구 기능과 해외전력조사 업무는 일본의 해외전력조사회(JEPIC)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다. 특히 해외전력부문 전문가 파견, 연수생의 영입 그리고 해외조사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후속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1989년에 일본 해외전력조사회 내에 국제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7. 전기계의 구심체

전기관계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법령에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활동과 개정안 입안, 각종 홍보활동, 전기기술정보실의 활성화 등의 활동을 하려면 자

# ◆ 제 1 차 APEC 테크노마트 개최 ◆

APEC(아·태경제협력체) 18개 회원국의 기업, 연구소간 기술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제 1 차 APEC 테크노마트』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동 행사는 APEC 역내국의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거래 상담과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기술거래시장으로서, 필요기술의 경제적 확보 및 기술수출기회 증대를 통한 우리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PEC 시대를 열어가는 '기술과 화합의 장'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기간 : '95. 5. 22~5. 27(6일간)

■ 장 소 : 대전종합전시장, 유성리베라호텔 및 롯데호텔

■ 주 제 : 21세기의 개방적 기술협력의 구현

■ 주요행사일정

- 개막전체회의 및 기술이전세미나 :

'95. 5. 22(월)

- 기술설명회 : '95. 5. 23(화)

- 기술전시회 및 상담회 : '95. 5. 24(수)~

5. 26(금)

- 산업시찰 : '95. 5. 27(토)

■ 참가대상 : APEC 18개 회원국의 기업, 연구소, 컨설팅회사, 대학 및 개인 등 약 1천여명

■ 참가경비 : 전시장사용료, 상담료 등 무료

■ 행사담당기관

- 주최 : 통상산업부

- 주관 : 산업기술정보원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 문 의 처

통상산업부 산업기술협력과 ☎ 500-2341~2

산업기술정보원 국제사업부 ☎ 962-6211(교)556

대한무역진흥공사 상품개발부 ☎ 551-4343~4

금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회원사 특히 전력그룹 회원사의 공감을 얻게 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공감을 얻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타당성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회비를 급격하게 인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소요 자금을 관계되는 회원사가 서로 분담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이 본체도에 오르면 그 소요자금을 회비에 가산한 액수를 회비로 책정하여 그 사업을 정착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홍보활동인 경우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그것도 비영리단체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월등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사의 홍보비용의 일부분을 전국적인 규모의 홍보비용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기계의 공동책임인 전기안전, 산업재해방지, 에너지절약, 절전, 물자절약, 환경보전 등은 홍보차원을 넘어서 캠페인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행사로 격상시킴으로써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국익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는 회원사가 부담하는 회비가 아닌 보다 근원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전력에서 지출되는 전기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연구소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과 같은 지원금은 비영리적이고 중립적인 전기계 중심 단체인 전기협회에서 주관하여 관련되는 전기계 각분야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정보수집도 마찬가지로 각사가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각사의 특수분야를 제외한 기본적인 공통부분은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이 확실히 경제적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원사들은 단독으로 이와 같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전력산업계를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한국전력 및 전력그룹회원은 각기 자체의 정보수집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기계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명일 것이다.

필요로 하는 인력은,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 회원사들로부터 적격의 사원을 파견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전기협회 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관련협회의 중견 간부자리에 많은 회원사 특히 전력회사의 간부급이 파견나와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서울에서 대한전기협회와 미국의 에디슨재단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 에디슨탄 생일 기념축전 및 과학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하여 한국전력 사원들이 전기협회에 많이 파견되어 국제행사를 훌륭하게 치뤘던 것은 실적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전기협회는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총괄적인 대국민홍보는 물론 교육·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산업계의 상호유대강화를 위한 친목과 화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계 각분야의 상호 정보교환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여 전기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세계화와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협회로 육성·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전기협회가 활기있는 모습으로 회원사에 봉사할 수 있을 때 전기협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전기계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전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회원사 특히 전력그룹 회원사의 아낌없는 협조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나라 전기계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성장을 위하여는 대한전기협회를 육성하여 전기계의 각 분야가 서로 깊이있게 이해하고 상호 협조할 때 보다 큰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